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오찬

### 과감한 분권은 지방자치를 이끌어 핵심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에 지자체와 의회에서 하실 일이 많은데 초청에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자치와 분권을 주장해왔는데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시민, 국민들이 참여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게 비로소 민주주의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려면 결정의 단위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분권과 자치야말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실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중심으로 되어가길 바랍니다. 자치, 분권에 소극적으로 되가는 것이 각 국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선 분권과 자치에서 앞서야 합니다. 분권, 자치가 시민의 참여에 의해 되지만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려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국회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해 모순됩니다. 전형적인 예가 옛부터 국회에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장관의 자의적인 개입성이 높고 정치적 의도로 배분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이 의심받았습니다. 일부분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일반 교부세 11분의 1, 내국세의 9%정도입니다. 정부는 거의 깎아 내는 결단을 내렸는데 어렵습니다. 결단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장관 권력이 깎이고 간접적으로 대통령 권력도 깎이는 것인데 국회에서 거꾸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

면 그렇습니다.

구조상 분권이 쉽지 않습니다. 분권과 균형발전 등 자치와 관련된 개혁입법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4기 자치단체장에 이르도록 지방자치활동을 열심히 해줘서 그게 세력으로 형성돼 국민들의 신뢰가 쌓여 있어 그 힘을 받아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국회의 공감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잘 안 될까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초청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가고 힘들게 가고 있으니 힘을 실어주시시오.

여야 간이 진보-보수 갈등이 있지만 앞으로의 갈등은 집권과 분권의 갈등, 타율과 자율의 갈등이 될 것입니다. 피라미드적 권력과 네트워크적 권력의 갈등입니다. 제도를 놓고 좀 더 권력을 대중화하자, 분산하자, 자치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 세력 간의 갈등이 오히려 본질적 갈등입니다. 입장을 달리해도 이 문제에 관한한 힘을 모아주시시오. 잘되면 민주주의가 한걸음 성숙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3대특별법, 분권관련 정책들에 대해 여러분 생각에 ‘겨우 이거냐’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관행에 비춰보면 굉장합니다.